

#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티엔롱그룹



## 베트남의 모나미, 티엔롱 볼펜은 매일 80억동을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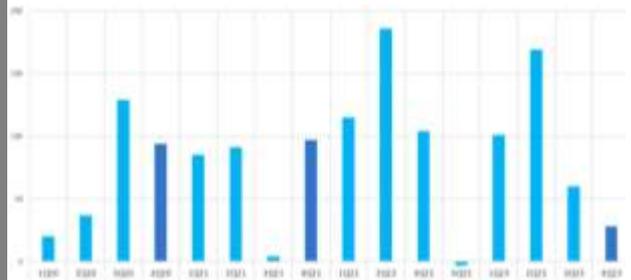
베트남의 국민 볼펜으로 사랑 받고 있는 필기 도구 및 사무 용품 제조 전문 기업인 티엔롱그룹 합작주식회사 (Thien Long Group, 주식코드 TLG)가 올 1월 2,410억 동 of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이중 매출은 운영 활동에서 발생했으며 수출 활동은 3% 증가한 1,080억동을 기록했다. 이로써 티엔롱 볼펜의 총 이익은 1,010 억동으로 13% 증가했다. 자본 비용의 감소도 이익률을 42%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작년에 비해 티엔롱의 SG&A 비용(판매, 관리 및 기업 관리 비용)은 760억 동에서 800억 동으로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덕분에 티엔롱 그룹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180억 동 of 세후 이익을 보고할 수 있었다. 티엔롱 관계자에 따르면, 1월의 긍정적인 사업 결과는 부분적으로 올해 설 연휴가 작년처럼 1월이 아닌 2월에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식료품점과 서점에서의 상품 예약 필요성도 다시 소폭 증가했다. 그룹의 OEM 수출 사업도 2024년 초 소폭 회복됐다. 한편, 티엔롱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1월과 1분기 사업 실적이 그 해의 전반적인 기업 매출과 이익 추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상업 및 마케팅 비용이 미실현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티엔롱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조 4260억 동으로 2022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세후이익은 3560억 동으로 11% 감소했다. 이 두 실적 목표 모두 매출 4조 동, 세후이익 4000억 동이라는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코자토 티엔롱 회장은 사업 결과를 평가하면서 2023년 일반 구매력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출처: [굿모닝베트남\(링크\)](#)

### Thien Long

티엔롱 그룹은 1981년 볼펜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베트남 문구업계의 1위를 자랑하는 회사이다. 2005년 자본금 1,000억 동으로 생산 및 무역 합자 회사로 전환했으며 2010년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지난달 시가총액은 약 4조 3,000억 동에 달했다. 만년필 등과 같은 고급 제품부터 어린이를 위한 미술 용품, 학생용 일반 필기구, 사무 문구류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한다. 현재 5만 5,000여 개 오프라인 소매점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전자상거래, 학교 등 B2B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문구시장 점유율 60%에 달하며 약 7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한다. 세계에서 매출 성장률이 높은 상위 40개 문구 회사, 베트남 상위 50개 기업 등에 선정돼 앞으로가 기대되는 문구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티엔롱 순이익 추이 (단위: 10억 동)>



한편, 세계적으로 문구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문구류 시장은 강한 잠재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약 6억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문구류 시장 규모 추이(단위: 백만 달러)>



출처: [티엔롱그룹\(링크\)](#), [Stockbiz\(링크\)](#), [KOTRA\(링크\)](#)

주요기사

**베트남, 1월 휴대폰 수출 55억 달러 '호조'**  
**전월대비 50.4%↑**

베트남의 1월 휴대폰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관총국의 '1월 수출 보고서(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월 베트남의 휴대폰 및 예비부품 수출액은 55억여달러로 전월대비 50.4%,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전체의 25%인 13억 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국이 7억 3400만 달러로 13%를 차지했다. 한국 수출은 3억 3000만여 달러로 6%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연간 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 비중을 불과했던 휴대폰 및 예비부품 수출은 이후 2011~2021년 기간 연평균성장률(CAGR) 34%를 기록하여 핵심 수출 품목으로 지위를 공고히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폰 수출시장 점유율 13%를 기록, 인도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수출국으로 올라선 뒤 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애플을 비롯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거대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의 차세대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관련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베트남, 뗏 여파**  
**2월 CPI 전년동기대비 3.9% 상승**

지난달 베트남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 2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3.98%, 전월대비 1.04% 상승했다. 에너지·의료비·교육비 등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과 변동성이 높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기대비 2.96% 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은 주로 뗏을 맞아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출가 상승으로 인해 오른 쌀값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른 휘발유·가스값 상승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월과 비교해 CPI 구성 항목 11개 상품·서비스군 가운데 9개 부문이 올랐고 우편·통신비와 교육비는 각각 0.17%, 0.42% 하락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금융

**2월, 약 28조 2천 억동 국채 발행**

하노이 증권거래소(HNX)가 지난달 총 12건의 국채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총 규모는 28조2000억 동(11억 USD)에 달했다. 금리는 5년 만기 국채 1.42%, 10년 만기 국채 2.31%, 15년 만기 국채 2.51%, 20년 만기 국채 2.65%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HNX에 따르면 국채 거래액은 전월 대비 2.91% 증가한 9조 3,630억 동에 달했다. 이 중 일반 거래가 58.5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환매 계약을 통한 거래에 해당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현재 만기 10년, 10-15년, 7년 만기 채권이 각각 16.92%, 15.15%, 12.66%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출처: [Vietnamnews\(링크\)](#)

**금투협, 베트남증권위원회와 협약**

금융투자협회가 베트남증권위원회(SSC)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베트남 지원에 나선다. 양국 자본시장 관련 법규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협력 세미나 개최, 상호 투자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확대와 자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SSC와 한국 금융투자회사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현지 금융투자회사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 베트남 감독당국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게 됐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 빈프억성

출처: [사진\(링크\)](#)

Region 2	Dong Xoai시; Chon Thanh, Dong Phu 현
Region 3	Phuoc Long, Binh Long면; Hon Quan, Loc Ninh, Phu Rieng현;

2024 년	최저임금(월급) (단위 : VND)		
Region 1	4,680,000	Region 3	3,640,000
Region 2	4,160,000	Region 4	3,250,000

## Minh Hung SIKICO 공단

면적: 655ha

입지: 동쏘아이 시내 49km / 떠선녓 국제공항 97km

주요 산업: 전자 산업, 조립 산업, 의류 산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78-85 USD/m<sup>2</sup> (관리비 0.045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EVN에 따름

일반 시간대) EVN에 따름

유휴 시간대) EVN에 따름

물 사용료: 13.600 VND/m<sup>3</sup>폐수 처리: 0.45-1.22 USD/m<sup>3</sup>출처: [Kland\(링크\)](#)

## 명 칭 : Binh Phước

GRDP : 8.34% (2023년 성장률)

빈프억성은 호찌민시에 인접한 베트남 남부 핵심 경제 지역(SKER)의 한 구역에 속한다. 주요 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베에 강항구가 있어 유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빈프억성은 최근 두 달 동안 산업생산지수(IIP)가 19.2% 증가하는 등 높은 산업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성 계획 목표를 초과한 11,700개의 기업이 있으며 총 등록자본금은 약 200조 동(87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빈프억성의 남동부 지역에는 28,000ha 규모의 경제특구 외에 총 6,000ha 규모의 1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빈즈엉·호찌민·동나이 인근 동푸 지구에 8개의 신규 공단을 계획하고 있다. 빈프억성은 투자 유치에 위한 노력으로 행정 개혁, 교통 인프라 개선, 인적 자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 고속도로 구간이 완공되면 닥농-빈프억-호찌민시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동나이성 룡탄 공항과 까이몹-티바이항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유로참과 호주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상업·첨단 농업·녹색 경제 분야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빈프억성\(링크\)](#), [Vietnamnews1\(링크\)](#), [Vietnamnews2\(링크\)](#)

## Bac Dong Phu 공단

면적: 189ha

입지: 탄푸옥 항구 60km / 떠선녓 국제공항 95km

주요 산업: 기계 공학, 전기, 전자, 제약, 직물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75 USD/m<sup>2</sup> (관리비 0.4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휴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 USD/m<sup>3</sup>폐수 처리: 0.28-0.35 USD/m<sup>3</sup>출처: [Kland\(링크\)](#)

##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 베트남 '다낭'에 영업센터 추진... 현지공략 가속화

신한라이프가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에 이어 다낭에도 영업센터를 만든다. 베트남 중부 지역 금융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낭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라이프는 베트남에서 올해 호찌민에 4~5개의 점포 운영이 가능한 영업센터 1개를 추가하는 데 이어 2026년까지 다낭에 영업센터를 추가하는 것을 논의하는 중이다. 현재 신한라이프는 다낭센터를 TM(텔레마케팅) 채널, 대면 FC(보험설계사) 채널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라이프가 베트남에서 영업센터를 늘리는 것은 베트남 전체 보험시장 성장잠재력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베트남의 보험침투율은 지난해 2%대로 낮아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다낭은 중부지역 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코트라에 따르면 다낭시는 베트남 중부 지역의 금융 거점과 더불어 마이크로 전자 기술, 칩 기술 및 반도체 회로 품목에 중점을 두어 국가 첨단 산업 및 지원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에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머니에스\(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우/[bhsjun@jplawvn.com](mailto:bhsjun@jplawvn.com) /070-7011-736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mailto: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진출 연대기



신한라이프는 1989년 신한은행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과 합병되고 현 사명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이다. 신한라이프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2022년 1월에 신한라이프베트남 법인을 공식 출범하였다. 2013년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검토했으며 2015년 6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하노이 주재사무소 개소를 발판으로 베트남 보험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등 리서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사업 모델링을 구상해왔다. 또 베트남 재무부, 보험개발원과 연계해 '베트남 보험료율 선진화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에 비대면 통신판매 TM채널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한은행 베트남과 신한베트남 파이낸스 등과 제휴하며 방카슈랑스 판매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베트남 법인의 전문 대면 영업조직 'FC(Financial Consultant)채널'을 출범시키며 시장 내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모회사의 보험 전문성과 전속채널 운영의 노하우를 베트남 법인에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이미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계열사와 시너지를 내며 차별적인 영업 경쟁력을 확보해 현지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신한라이프\(링크\)](#), [글로벌이코노믹\(링크\)](#),  
[뉴스워치\(링크\)](#)